

블랑팡이 르 브라슈(Le Brassus) 숲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그린 다이얼로 새로운 퍼페츄얼 캘린더를 장식했습니다.

탁월한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자랑하는 르 브라슈 매뉴팩처는 미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겸비한 시계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르 브라슈 매뉴팩처는 이번 윤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빌레레 퍼페츄얼 캘린더 모델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레드 골드 케이스에 처음으로 그린 색상의 다이얼을 장착한 이 모델은 우아하면서도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이름의 유래가 된 푸른 전나무로 둘러싸인 마을과 블랑팡의 노하우에서 DNA를 이어받은 빌레레 컬렉션은 정통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이 컬렉션은 블랑팡 매뉴팩처와 스위스 기계식 워치메이킹 기술이 낳은 특별한 컴플리케이션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정신에 충실한 퍼페츄얼 캘린더는 윤년을 포함한 월과 연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날짜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정교한 캘린더입니다. 진정한 기계식 메모리를 탑재한 이 캘린더는 윤년의 차례지만 윤년이 아닌 2100년 2월까지도 어떠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그레고리력에서 4세기 중 3세기 동안 한 번씩 발생합니다.

블랑팡의 이 메커니즘은 6시 방향에 문페이스가 장착된 독특한 모양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뉴팩처의 상징적인 디테일인 문페이스는 퀴츠 시계의 등장이 초래한 1970년대의 위기 이후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명성을 되찾고자 했던 블랑팡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블랑팡은 문페이스를 통해 기계식 시계만이 제공하는 디테일을 증명했습니다. 블랑팡은 문페이스를 도입함으로써 특히 퍼페츄얼 캘린더를 비롯한 수많은 컴플리케이션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매뉴팩처는 2024년 윤년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빌레레 퍼페츄얼 캘린더 모델을 선보이며 다시 한 번 그 전문성을 입증합니다. 5954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이 모델은 72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하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정교한 마감 처리와 별집 모양의 레드 골드 로터, 실리콘 헤어스프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이 복잡한 이 퍼페츄얼 캘린더는 사용자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각 표시가 바뀌는 동안 착용자가 시계를 조정하더라도 캘린더 메커니즘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한 무브먼트입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 러그 아래의 커랙터입니다. 2005년 블랑팡이 세계 최초로 퍼페츄얼 캘린더에 도입하여 특허를 획득한 이 시스템은 별도의 보정 도구 없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만으로 캘린더의

표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러그 아래에 위치한 이 커렉터는 시계를 착용할 때는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캘린더 시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어 측면을 매끄럽고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캘린더 표식의 레이아웃으로 보완됩니다. 블랑팡이 자체 개발하고 제작한 메커니즘은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보 표시가 다이얼 전체에 명확하게 분산되어 뛰어난 가독성과 미적 균형을 선사합니다.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우아한 그린 다이얼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공방의 워치메이커들이 이 캘린더를 제작하는 발레-드-주(Vallée de Joux) 지역의 소나무 숲을 연상시킵니다. 악어 가죽으로 제작된 브라운 스트랩은 수십 년 동안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대지와 그 풍요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빌레레 컬렉션의 시그니처인 40mm 더블 스텝 케이스와 레드 골드 소재의 인덱스와 핸즈가 선사하는 대조적 터치는 제품의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이 모든 디테일이 어우러지며 따뜻한 색상의 조화로운 시계가 탄생합니다.

작동 구조는 복잡하지만 사용은 편리한 이 새로운 퍼페츄얼 캘린더는 그린 다이얼과 레드 골드 케이스의 조합을 통해 윤년인 2024년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